50돌 한국불교학회, 불교학 미래 조명 국제대회 연다

11월 3~4일 동국대 일원서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 주제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사)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가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한국불교학회는 11월 3~4일 동국대 일원에서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 새로운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3년 7월 7일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창립한 한국불교학회는 최초의 불교학 전문 학술단체로, 창립 이후 명실상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회로 발전해왔다. 창립 당시 홍정식 교수가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이운허 · 조명기 · 김동화 · 장원규 · 최범술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학회지 〈한국불교학〉은 1975년 창간된 이래 최근 100집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불교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춘 · 추계 학술대회, 춘 · 추계 워크숍을 통해 불교학술 담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학 대중화를 위한 강좌도 개설 · 운영하고 있다.

창립 후 반세기 동안 한국 불교학계를 이끌어온 한국불교학회가 개최하는 창립 50주년 학술대회는 한국불교 연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세계 불교 연구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해외 석학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인도불교 전문가인 폴 해리슨(Paul Harrison)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무착부터 함허득통까지-〈금강반야바라밀경〉의 주석 전통에 관한 고찰'을, 린챈궈(林鎭國) 대만 정치대학 철학과 명예교수는 '공성과 카르마의 세속주의'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유식학 석학인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 일본 와세다대 문학부 교수는 '선정에 있어서 심상관의 고찰: 아뢰야식설의 관점으로'를, 모로 시게키(師茂樹) 일본 하나노조대 문학부 교수는 '대화의 철학: 교상판석과 불교논리학의 현대적 의의'를, 모리야 토모에(守屋友江) 일본 남잔대학 남잔종교연구소장은 '국경을 초월한 불교사에 대해-동아시아와 북미에 걸친 불교와 이민'을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불교학회를 이끈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와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평래 명예교수는 '한국불교학회의 반세기 회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김용표 명예교수는 '종교불학의 학문적 성격과 해석학적 과제-문명전환기의 불교연구 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을 각각 기조강연한다.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다채로운 주제의 학술 논의들이 이뤄진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유식불교 △불교인식론 △동아시아불교 △인도철학 △불교와 마음철학 △불교와 문화예술 △현대사회 윤리와 계율 △한국불교학의 나아갈 방향 등 9개 분과에서 44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불교학회는 10월 1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이평래, 김용표 명예교수 기조강연서
한국불교학 연구 진단, 방향성 제시
폴 해리슨 등 세계 석학들 초청강연
9개 분과 44명 학자들 연구논문 발표
"문명전환기 韓불교학 역할 모색할 것"

학술대회에 앞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학회 발전에 앞장선 故윤용숙(실상화) 보덕학회 설립자와 김영태(제10~12대 학회장) · 권기종(제15대 학회장) · 김선근(제18대 학회장) · 김용표(제19~20대 학회장) · 권탄준(제21대 학회장) · 성운 스님(제22대 학회장) · 혜거 스님(한국불교학회 명예고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며, 자현 스님(월정사)과 김영미 부산대 교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제3회 탄허학술상 시상식과 봉은사 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 환영 리셉션 등도 진행된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지금 세계는 뷰카(VUCA)로 특징되는 급변하고(Volatility), 불확실하고(Uncertainty), 복잡하며(Complexity), 모호한(Ambiguity) 문명의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조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미래를 통찰하는 비전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이 같은 문명전환기에 불교학이, 불교교단이, 불교신자가, 불교학자들이 모색해야 할 인간의 가치와 정신, 윤리, 사상의 향방은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 창립 50주년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문명사의 대전환기에 불교가 나아갈 방향과 시대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모색하며 세계 저명한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각자의 연구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우리 한국불교학이 문명의 신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함께 고찰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평래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집행위원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중심이 돼 1973년 출범한 한국불교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성장했다"고 자부하며 "이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 조류 속에서 한국불교의 지향점을 살펴봐야할 시기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물 '청룡사 비로자나괘불도' 통도사 나들이

통도사 성보박물관, 내년 4월 14일까지 전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개산대재 1378주년을 기념하며 통도사성보박물관 1층 괘불전에서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를 전시한다. 전시기간은 10월 2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하단의 화기를 통해 1806년 조성된 작품으로 밝혀졌으며, 총 5명의 화승들이 참여해 제작했다. 화면의 세로 길이가 5m로 현존하는 괘불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크기에 속하며, 너비 약 43cm 가량의 삼베 8매를 이어 화폭을 마련했다.

화면에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 석가모니불을 입상으로 채워 그렸는데, 지면으로부터는 구름이 수직으로 피어오르고 천공에도 색색의 구름이 횡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듯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은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 지권인을 결한 모습이 독특한데, 오른손으로 감싸 쥔 왼손의 두 손가락 끝이 보이게 표현하였다. 양 손목에는 원형의 느슨한 붉은색 팔찌를 하고 있는 점도 색다르다. 높이 솟은 육계(肉髻)의 정상 계주(髻珠)로부터 두 줄기의 상서로운 기운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양쪽의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 역시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중앙의 비로자나불보다 반 발짝 앞에 선 것으로 배치하였다. 보관을 쓰고 설법인을 취한 노사나불의 모습은 석가모니불이 정각(正覺)을 이루었을 때 노사나불로 나투시어 〈화엄경〉의 내용을 처음으로 천신과 보살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다섯 비구에게 처음 전할 때는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설하여, 각 근기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물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개관 이래 매년 2회에 걸쳐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개산대재에 맞춰 괘불을 헌괘하여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많은 불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박물관,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층 기획전시관서 30여점 전시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이 10월 24일 박물관 내 2층 기획전시관에서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을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성보박물관 신축 개관 이후 첫 번째 초대전이며 한국 불교미술 전통계승과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작품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사자상 · 코끼리상'(목재)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의 작품 '국가무형문화재 80호 자수장'(견본채색),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불화장 김종섭의 '옴 오백나한도'(견본. 선화)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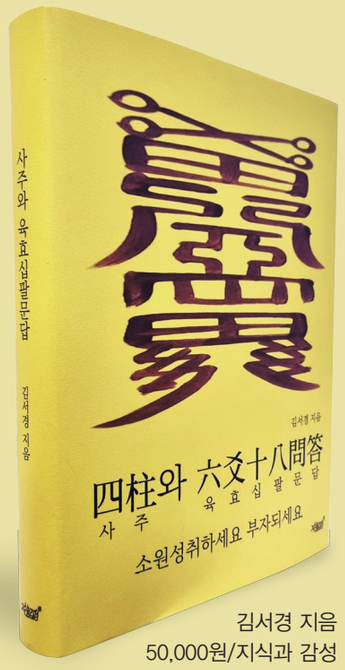
동국문화예술회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미술 전공 동문 모임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 청원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정병국 교수, 조해종 교수, 최무상 교수 등 대표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최무상 작가의 '약사여래불'.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환응 스님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불교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획전시관을 마련했다"며 "첫 번째 초대전을 한국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있는 동국문화예술회전으로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11월 7일부터 '한국민화불화지도자협회전'을 진행한다. 한국민화불화지도자협회는 부산지역의 불교미술과 민화를 연구 창작하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단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주와 육효를
동시에 배우는 지름길

四柱와 六爻十八問答
사 주 육 효 십 팔 문 답

○ 사주와 육효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며, 한문은 참고로 기재하였습니다. 기초 암기 사항만 암기하고 읽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사주는 120개, 육효 십팔문답은 12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효는 사주에서 풀지 못하는 승진, 합격, 매매, 송사, 재물운, 사업운, 혼인점, 택일, 이사, 개업방향, 이사방향, 한해의 길흉월과 한달의 길일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서경 지음
50,000원/지식과 감성

– 육효 해설 예시문(39p)

風天小畜㊍ 一 世 6.動 水天需
풍천소축 수천수

兄 卯 ㅏ 卯묘년
文 子 亥해월
生 破 孫巳 丨 丙병인일 占점
財 未 丨 應
財 辰 丨 子자하년 脫탈難난
兄 寅 丨
文 子 丨 世

단왈 이 괘는 자손이 어려움에서 어느 때 벗어날 것인가를 문의한 점인데 자손은 손(孫)이 용신(用神)이라. 오효사화(五爻巳火) 손(孫)이 위(爲) 용신(用神)인데 월건해수(月建亥水)가 충(沖)하여 월파(月破)를 당하여 불리하고 일진인목(日辰寅木)에 생을 받아 길하다. 연인데 육효묘목(六爻卯木) 원신(原神)이 동(動)하여 용신사화(用神巳火)를 생하고 있어 이는 이생일파(二生一破)가 되어 용신(用神)이 왕하여 성사가 되므로 어려움에서 곧 풀릴 것이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느 때인가 답 왈 금년(今年)은 묘년(卯年)이니 사년(巳年)에 회복(回復)할 것이라 하였더니 과연 사년(巳年)에 대획리(大獲利)하였다. 응(應) 사년(巳年)은 용신사화(用神巳火)가 월파(月破)를 당하였기 때문에 사년(巳年)은 파(破)를 메우는 년(年)이기 때문이다.



송암(松岩) 김서경(金抒儆)
1951년 생으로 1970년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에 있는 장육사에서 수행하였다. 1981년 역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992년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자료수집과 〈실전사주〉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2012년 〈실전사주〉 출간, 2023년 〈사주와 육효십팔문답〉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 사주 해설 예시문(382p)

58년(음) 3월 7일 사(巳)시 남자

乙	壬	丙	戊
巳	申	辰	戌

54	44	34	24	14	4
壬	辛	庚	己	戊	丁
戌	酉	申	未	午	巳

이 사주는 임수일주(壬水日柱)가 춘계진월(春季辰月)에 출생하여 실시(失時)하고 진중무토(辰中戊土)와 을목(乙木)이 투출(透出)하여 어느 오행(五行)으로 격(格)을 잡느냐의 기로(岐路)에 서게 된다. 날짜상으로 보아 진중(辰中)에는 을목(乙木)이 사령(司令)하므로 시상을목(時上乙木) 상관(傷官)으로 격(格)을 잡는다. 그러므로 상관격(傷官格)이며 사주에 재살(財殺)이 태왕(太旺)하다. 다행히 임수일주는 자좌신금(自坐申金)에 장생(長生)하여 종(從)하지 않으며 살인상생(殺印相生)으로 금인수(金印綬)가 용신(用神)이며 수비견겁(水比肩劫)은 희신(喜神)이 된다. 이 사주는 남자(男子)의 사주로서 외국어(外國語)에 능통(能通)하여 국제상사(國際商社)에 근무(勤務)하다가 44세 신유대운(申酉大運)이 잘 들어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높은 직위(職位)에 승진한 사주다.

– 사주 해설 예시문(383p)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
❷ 질병(疾病): 냉(冷), 신장(腎臟), 방광(膀胱), 치질(痔疾), 비색증(鼻塞症)
❸ 남녀성격: (남) 털털한 성격, 원만하다, 활발하다, 지혜롭다, 포용력, 만인의 신망, 고집 대단, 박력 있다, 영리하다, 일독십지, 처 덕 있다
(여) 남자 같은 시원한 성격, 새것을 좋아함, 영리하다, 부궁불미, 정부, 예능, 문학에 소질 있다, 친모봉양

◑ 세운 · 질병 · 남녀성격의 해설(歲運 · 疾病 · 男女性格의 解說)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원명사주(源命四柱)에 재살(財殺)이 왕(旺)한데 세운에서 재(財)나 관살운(官殺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손재수나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관재, 수술, 자연 재앙**은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인목(寅木)은 일지신금(日支申金)과 인신충(寅申沖)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지충운(日支沖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수술이나 자연 재앙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주(日柱)를 극(剋)하는 운(運)이 들어오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불화가 많이 생긴다.**

■ 판매처 010-3341-4867 ■ 값 50,000원 ■ 국민은행 442802-01-177578 (예금주 김성민)
입금하시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